

## News

### 내달부터 시중은행도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개시

연합뉴스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까지 연 1.5%로 대출 또한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

### 국내 RP시장, 대내외 충격시 채권시장 등에 연쇄적 악영향

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355조원으로 1년 전 302조원보다 17.5%(53조원) 급증...RP 시장이 성장을 주도 한국은행은 국내 단기금융시장인 환매조건부증권(RP) 시장에 리스크 요인이 있으며 정부의 개선조치가 시행되면 다소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혀...

### 금융당국, 바젤III 6월 조기 도입...은행권 BIS비율 1~4%p 상승

이투데이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최종안'을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을 하향 등 포함... 6월 말 BIS비율 산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

### CP-CD 금리 차 금융위기 이후 최대...기업 신용위험 ↑

연합뉴스

지난 27일 기업어음(CP) 91일물 금리는 2.09%로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1.10%)보다 99bp 높아...2009년 1월 30일 이후 가장 커 CP 금리 5년 만에 최고...주요 수요처 MMF 자금 급감...한국은행 '무제한 양적완화' 4월 초 진정 여부 주목

### 올 보험사 주총에서도 '고배당 정책'

한국보험신문

지난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장 보험사 11곳의 올해 배당성향은 평균 38.9%를 기록...실적 악화에도 보험사 대부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배당성향 이어가 11개 보험사 중 8개사가 배당성향 30%를 웃돌아...삼성화재는 배당성향 55.8%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삼성생명도 배당성향이 45%

### 푸르덴셜생명 '오버베탱' 우려 커지는데...오렌지라이프와 비교해보니

아시아투데이

KB금융을 비롯해 입찰에 참여한 사모펀드들이 추가 가격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각가는 본입찰 제시 금액보다 더 올 수 있다는 분석 푸르덴셜생명 매각측은 오렌지라이프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산과 수익성 등에서 오렌지라이프보다 뒤쳐져...무리하게 인수하면 '승자의 저주'

### '코로나19 폭락장' 버팀목 개미들, 연기금의 5배 샀다

파이낸셜뉴스

주가가 폭락한 최근 두달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중시 구원투수'로 불리는 연기금의 5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개인 순매수 18.1조, 연기금 3.3조의 5.5배...개인 · 연기금 순매수 1위 삼성전자 · 2위 SK하이닉스 같아...개인 3위는 현대차

###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120억달러 31일 시중에 공급

연합뉴스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600억달러 가운데 1차분 120억달러가 오는 31일 시중에 공급...입찰 이후 금융회사에 실제 돈이 풀리는 시점은 4월 2일 금융회사별로 최대 응찰금액을 7일 만기 대출의 경우 3억달러, 84일 만기 대출은 15억달러로 한정해 자금이 시중에 고루 풀리도록 해...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